# 지역에서의 문화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희숙*·임영상**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문화자원봉사의 개념과 의의
Ⅲ.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현황과 과제
Ⅳ.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고려사항
Ⅴ.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문화자원봉사가 본질적으로 지역에서 가지는 의의와 목적을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사업의 하나인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문화자원봉사 본래의 의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문화자원봉사는 본래 지역과 맞닿아 있는 활동으로, 자신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지역의 다른 지역민들과 소통·교감하면서 지역민의 문화자본 축적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문화자원봉사가 지역문화 활성화, 나아가서는 문화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의 의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문화자원봉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활성화 사업)의 지향점을 ‘사업방향의 전환’, ‘지역 현황을 반영한 문화자원봉사자 및 활동 발굴’, ‘지역에서 정착이 가능한 체계 확립’, ‘유사 영역과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문화자원봉사가 한시적인 정책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정착하고 지역민의 일상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자원봉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 문화자원봉사, 지역문화,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 I. 머리말

최근 문화향유의 형태가 체험을 통한 참여를 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까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시간이 갈수록 전문가와 같은 단계로까지 발전하여, 그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현장을 찾게 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내의 자원봉사와 연결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이든 세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자원봉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발굴하고 참

여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나이든 세대의 은퇴 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참여·학습의 모임들이 시간의 축적에 따라 지역의 동호회로 자리 잡게 되면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요구는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여활동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지역 동호회가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법과 무대 중의 하나가 재능을 나누는 형태의 자원봉사 현장이다.[1)]

이와 같은 활동들은 지역이 학습의 장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그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을 지역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적 활동과 자원봉사를 결합한 '문화자원봉사'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자원봉사는 문화융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책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자원봉사란 단어가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정책사업으로 실행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문화 기관 및 현장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개념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문화자원봉사가 가지는 의의와 가치, 지역과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문화자원봉사의 본질적인 의의와 정책사업으로서의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자원봉사의 방향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

1) 성남시에서 1,103개의 오프라인 문화예술 동호회를 찾아서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2000년대에 형성되었으며, 그 중 33.6%가 스스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펼치는 형태였다고 한다. 박승현, 「문화예술과 여가를 통한 국민행복-패러다임의 전환과 여가정책」,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 종합토론회 자료집-문화융성으로 여는 국민행복』, 2013. 25쪽

## Ⅱ. 문화자원봉사의 개념과 의의

문화자원봉사는 1990년대 문화복지 정책이 도입되면서 문화시설 활성화 및 국민들의 문화참여 향상을 위해 전문예술과 국민 사이의 매개활동을 위한 활동이 그 시작이었다.[2] 이와 함께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 지역문화시설과 현장에서 활동이 가능한 문화자원봉사 양성교육을 실시하면서 문화자원봉사 확산을 도모하기도 하였다.[3]

이와 같이 문화자원봉사라는 개념은 오래 전에 시작되었지만 현재 많은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를 '문화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등치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 그런데 최근 문화융성이 국가의 중요 정책방향으로 설정되면서 개인의 문화체감 향상을 위한 중요 키워드로 '문화자원봉사'가 부상하게 되었다.

문화자원봉사라는 용어는 '문화'와 '자원봉사'를 합친 단어로, 일반적인 '자원봉사'의 개념에서 활동 영역을 문화부분으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정의한다.[5] 이를 다시 두 개의 의미로 나누어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무보수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과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신의 재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하기도 한다.[6] 좀 더 단순화하자면 문화예술 장르에 실연자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문화적 공간 및 영역에서의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문화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문화자원봉사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문화자원봉사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

2) 전병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45쪽.
3)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세미나 자료집』, 2015, 55쪽.
4) 이에 대해 전병태는 "관심있는 문화시설 및 단체를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병태, 앞의 책, 45쪽.
5) 전병태, 앞의 책, 42쪽.
6) 조현성,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6쪽.

<표 1> 자원봉사와 문화자원봉사의 특성

| 구분 | 자원봉사 | 문화자원봉사 |
|---|---|---|
| 공통점 | - 활동에 대한 대가없이 시간, 노력, 재능을 나누는 자발적 행위<br>- 수혜자와 피수혜자 간의 감정교류를 지향<br>- 자아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효과 | |
| 차이점 | - 지역사회 전반에 관련된 봉사활동<br>- 문제인식→실행→해결의 진행과정<br>- 수혜자-피수혜자간 교감정도 다양<br>- '도움'과 '돌봄'이 혼재<br>- 활동의 목표가 다양 | - 문화예술 관련활동, 문화예술 공간에서의 활동<br>- 감수성, 창의성, 전문성의 순환과정<br>- 수혜자-피수혜자 간 교감이 중요<br>- 문화적 교감을 통한 '돌봄'의 형태<br>- '문화적 감성 제고'가 주요 목표 |
| 강조점 | 사회적 공공성을 높이는 시민성 | 삶의 질 향상 |

출처 : 전병태, 44쪽 및 문화자원봉사 가이드 재구성

공통적으로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으로 타자지향적이며, 감정교류를 지향하는 활동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아실현을 돕는다. 이와 함께 활동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며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력 제고나 공동체 의식 유발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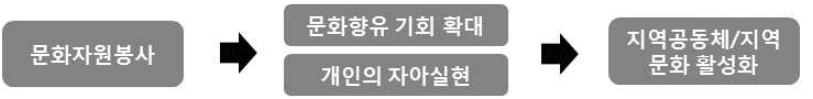
문화자원봉사는 일반적인 자원봉사와는 달리 활동이나 공간의 범위가 문화예술로 한정되며, 문화활동을 통한 '교감'을 통해 피수혜자의 문화적 감성 향상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문화활동 대상자의 문화적 감성을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다시 말하면 문화자원봉사는 "시민 스스로의 문화적 소통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며, "개인의 문화 감수성 및 삶의 기획력 증진, 사회적 창의성과 활력을 띤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7] 이를 통해 보면 문화자원봉사 활동은 재능을 제공하는 문화자원봉사자에게는 여가활동이며, 문화활동 참여의 결과이기도 하다.[8]

7)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시군구지원센터 교육자료집』, 2015, 11쪽.
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자원봉사 가이드-스스로 나누고 즐기는 힘, 문화자원봉사』, 2014.

그리고 수혜자는 적은 노력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되며, 장기적으로 문화자원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자원봉사는 “지역의 문화공간 활성화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수혜자·피수혜자·문화기관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확대에 기여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9] 지역내 문화공간이나 축제와 같은 중요 이벤트 등에 문화자원봉사자가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지역의 문화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공하는 콘텐츠의 다양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와 같다.




<그림 1> 문화자원봉사와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이를 통해 보면 문화자원봉사의 본질적 의의와 목적은 개인과 지역사회, 지역주민 간 교감과 소통의 매개체라는데 있다. 지역 내에서의 문화자원봉사는 지역공동체 복원,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요한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문화자원봉사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재로 지역에서 생활문화활동으로 시작하여 문화자원봉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연수지역의 문화기관에서는 지속적인 동아리 지원을 통해 동아리 활동이 취미활동에서 지역에서의 문화자원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10] 대표적으로 전통문화활동단

9) 전병태, 앞의 책, 43쪽.
10) 인천연수문화원 http://www.yeonsu.or.kr/page/sub2_1 (2010. 10.10)

동아리는 인천 연수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이자 봉사단이다. 인천연수문화원에서 2013년 전통놀이·예절·다도 수업을 70시간 이후한 후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형성하였고, 지역의 아동센터 등에서 현재까지도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11] 그리고 2년차 심화과정 프로그램까지 모두 이수한 이후에는 연수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보조강사로 채용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지역에서의 학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데에 문화자원봉사가 주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다도나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아동들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지역에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지역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축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나와유 축제는 문화의 집에서의 활동을 지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1년에 2회 어린이날과 10월에 진행되는데, 지역에서 아이들과 살아가는 부모들의 고민을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를 담고 시작되었다고 한다.[12] 그리고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문화활동으로 봉사하는 모임이 파생되기도 하였다. 지역에서의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이 강화되고, 이것이 새로운 문화자원봉사로 파생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역에서 문화자원봉사가 가지는 의의라고 할

11) 한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2015년 가을호, 6~7쪽.
http://www.kccf.or.kr:8080/dspv1User/recsroom/ourCltur/OurCltur.do(2016. 10. 11)

12) 문화체육광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자원봉사 활동 개발 연구』, 2014, 73~75쪽.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활동처 교육자료집』, 2015, 63~69쪽.
(사)문화의 집 협회 http://www.cultureclub.or.kr/board/index.php?mid=news&document_srl=12207 (2016. 10. 12)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동체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자원봉사의 본질에 착안하여 국가의 유한한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13]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자원봉사를 활용한 정책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진행현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Ⅲ.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현황

### 1. 사업의 등장과 주요 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생활문화 확산"이라는 문화정책 아래 2014년 시작되었다. 이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문화예술과 관련된 봉사활동들을 '문화자원봉사'로 영역화함으로써 일반 자원봉사와의 차별성 부여, 문화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을 통한

13) 해외에서도 자원봉사의 중요 분야로 문화자원봉사 영역을 주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공공기금 지원을 통해 정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민간조직인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Valuntary Arts Network)는 시민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궁극적으로 자발적 문화활동이 자연스럽게 문화자원봉사, 문화교육,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2년 당시 문화청 장관에 의해 문화자원봉사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이후 다양한 문화시설에 문화자원봉사 활동이 정착되었고, 현재는 시스템의 구축·예술NPO의 활성화 등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자원봉사 활동 개발 연구』, 2014, 34~37쪽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문화품앗e, "일본 문화자원봉사의 현재와 미래", http://csv.culture.go.kr/frt/biz/bbs/layout05/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94&pageIndex=4&nttId=275 (2016. 10. 12)

접근성 제고, 문화시설 및 단체의 관심 증대를 목표로 하였다.[14]

사업의 시작시기인 2014년에는 “문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과제로 추진되었고 주요 내용은 “문화자원봉사 매뉴얼 마련 및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이었다.[15] 2015년에는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사업의 주요 목적은 “문화체육자원봉사 시스템 활성화 및 인식확산”이었다.[16]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문화융성”의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첫째,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둘째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셋째,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넷째 문화경쟁력, K-프리미엄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전략의 추진과제로 “생활 속 문화체감”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이에 해당되어 있다. 생활 속 문화체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고도화와 문화자원봉사 참여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아래에서 추진 중인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크게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의 정착과 문화자원봉사의 확산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17]은 2014년부터 구축·운영되는 것으로, 1년간의 운영경과를 바탕으로 기능을 개편하기도 하였다.[18] 이는 문화체육분야의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시설과 문화자원봉사자의 가교역할을 하는 사이트이다. 문화기

---

14) 전병태, 앞의 책, 45쪽.
15)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주요업무계획」
16)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주요업무계획」
17)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문화품앗e http://csv.culture.go.kr (2016. 10. 3)
이 시스템은 “문화자원봉사자와 활동처 간의 온라인 매칭지원 시스템으로, 문화자원봉사자가 활동할 곳을 찾거나 문화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봉사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구축된 것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시군구지원센터 교육자료집』, 2015, 14쪽
18) 2016년 3월 개편이 완료되어, 현재 새로운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시스템을 “문화품앗e”라는 별칭을 부여하였다.

관이나 단체, 개인이 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관에서는 문화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봉사자는 자신의 재능이나 관심에 맞는 봉사현장을 찾아서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에서 이 시스템의 활용과 사용자 증가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다. 운영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였고, 2014년부터 매년 주요업무계획에 시스템 활성화, 회원가입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문화자원봉사 확대를 위해 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전국적인 지역거점을 지정·운영하였다. 문화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문화자원봉사자, 시군구지원센터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였고,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역거점으로 전국 지방문화원과 생활체육회를 시군구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문화와 체육분야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현장에서도 문화자원봉사가 자리매김하기를 추구하였다.[19]

각 시군구지원센터에서는 시스템의 운영과 함께 지역에서 문화자원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지역까지 문화자원봉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지역의 문화자원봉사 현장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문화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교육에 시군구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자원봉사 활성화'는 지역 내에서 시군구지원센터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주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1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나에게 맞는 문화체육자원봉사, 더 쉽게 찾는다.", 2014. 12. 22
보도자료에서는 매칭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전국의 문화원 및 생활체육회가 시군구지원센터가 되어 지원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리고 있다.

<그림 2>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운영체계

출처 :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문화품앗e

이와 함께 시군구지원센터의 역할을 관리하고, 광역범위에서의 봉사현장 및 활동의 모니터링 등을 하는데 시도지원본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즉 지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군구지원센터와 시도지원본부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 및 홍보 활동 수행시 시도지원본부 및 시군구지원센터 협업을 유도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를 활동처로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도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시스템 운영과 문화자원봉사 확산·정착을 주요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2. 문화자원봉사 본질에 따른 과제

문화융성 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문화자원봉사가 부상하면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또한 3년째 진행 중이다.[20] 문화자원봉사의 개

20) 2014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시스템의 운영,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한 정착을 도모하고 시도지원본부 및 시군구지원센터의 운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운영된 것은 2015년부터라

념과 의의, 문화융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금까지 운영된 방향과 내용을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먼저, 현재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문화자원봉사의 본질적 가치와 지향에 충실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자원봉사는 문화활동을 매개로 강한 교감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의 활동이다. 문화자원봉사는 지역주민의 문화적·정신적 풍요에 기여[21] 하는 것뿐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자원봉사자도 자신의 문화예술적 재능의 공유와 배움의 실천을 통해 삶의 풍요를 추구할 수 있다.

문화자원봉사를 통해 기관이나 단체는 운영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해질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증대와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자원봉사의 가치이며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본래의 의미보다는 자원봉사에서 시작한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을 위한 시스템 활용 등이 더욱 부각되어 보인다. 2014년에는 '문화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문화자원봉사 확산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 문화시설 대상 자원봉사 직무분석, 매뉴얼 마련 및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22] 2015년에는 '문화체육자원봉사 시스템 활성화 및 인식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제

---

고 할 수 있겠다.

21) 전병태, 앞의 책, 42쪽.

22)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문화융성"의 실현을 4대 추진전략과 각 전략별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의 첫 번째는 국민 문화체감 확대, 두 번째는 인문·전통의 재발견, 세 번째는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네 번째는 문화가치의 확산이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전략의 세부과제로 '문화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문화자원봉사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시하면서 '위에서부터의 확산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중요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

2016년에도 사업수행은 '매칭시스템 활용'이 중심이라 볼 수 있다. 매칭시스템 개편을 통해 회원가입대상 확대[23]가 문화자원봉사 참여확산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곧 문화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의도이다. 즉, '매칭시스템 회원확대=문화자원봉사 확산'이라는 인식이 그대로 사업내용과 목적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문화자원봉사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화자원봉사의 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둘째, 타 사업영역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이미 "자원봉사"를 주요한 부처사업으로 운영·관리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일반적인 자원봉사, 사회복지자원봉사, 청소년자원봉사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국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거나, 봉사자-활동처(기관 및 단체)간 매칭시스템을 운영하며,[24]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 타 사업과의 연계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자원봉사 개념을 기반으로 자원봉사의 분야(사회복지 분야)와 활동주체(청소년) 등으로 특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자원봉사 또한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적으로 타영역과의 연관성, 정확한 영역구분, 포함관계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수행시 세부적으로는 각각의 영역에

---

23) 2014년 사업 초기 매칭시스템의 회원은 성인으로 한정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양질의 문화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2015년 기능개편시(2016년 완료) 회원가입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주요업무계획」.

24) 1365자원봉사 포털 https://www.1365.go.kr (2016. 4. 13)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 https://www.vms.or.kr (2016. 4. 14)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http://dovol.youth.go.kr (2016. 4. 13)
등 각 중앙부처별로 자원봉사 매칭,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1365자원봉사 포털이 가장 규모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자원봉사센터도 비교적 활발히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서 동일한 봉사활동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시스템의 연계운영에 대한 요구 등의 발생에서부터 시군구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간의 지역내 경쟁구도 형성 등 운영체계상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도지원본부 및 시군구지원센터가 타 영역 자원봉사와의 차별성이나 타 시스템과의 관계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문화자원봉사 정착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지방문화원과 생활체육회를 시군구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25]하면서 기본적인 운영기반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잡힌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10항[26]에 의거하여 그 활동의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시군구지원센터의 조직운영이나 예산운영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자원봉사 논의체계에서 문화자원봉사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문화자원봉사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배제되어 있어, 문화자원봉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다.[27]

이에 따라 지역거점기관의 운영기반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활동의 근거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체계가 미흡한 것이다. 또

2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나에게 맞는 문화체육자원봉사, 더 쉽게 찾는다.", 2014. 12. 22

2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10항에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2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당연직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부조정실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따르면 당연직 실무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자원봉사 이외의 타 영역들은 이미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각 영역의 특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 시군구지원센터가 문화자원봉사를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원 및 생활체육회는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문화자원봉사만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문화분야와 체육분야의 시군구지원센터를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예산과 인력 사용 등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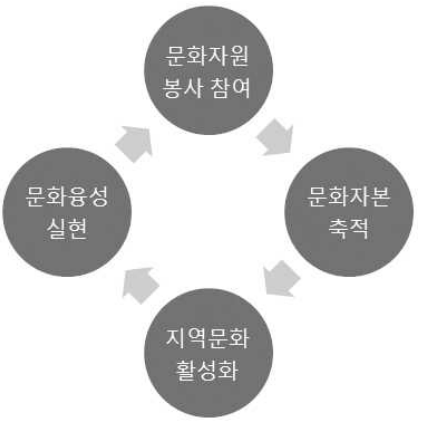
이와 같이 문화자원봉사가 주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본질에 부합하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문화자원봉사가 정착하고 본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을 제안해보도록 하겠다.

## Ⅳ.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고려사항

### 1. 문화자원봉사 의의를 반영한 사업방향 전환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자원봉사의 본질적 의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자원봉사를 국가적 관점으로 통제·관리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생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자원봉사는 지역과 맞닿아있는 활동이다. 지역민이 수혜자이면서 콘텐츠 제공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고 지역민의 문화자본을 축적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지원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문화자원봉사는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지역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매채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자원봉사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문화자원



<그림 3> 문화자원봉사와 문화융성의 순환적 관계

봉사 활성화 사업의 장기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담은 지역문화의 정립과 활성화에 문화자원봉사가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문화자원봉사의 중요 역할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진정한 문화융성 달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융성은 개인의 삶, 일상, 지역에서의 시간이 풍성할 때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자원봉사가 지역에서 자리 잡을 때 이것이 실현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자원봉사-지역문화-문화융성 간의 선순환적 관계가 정립되어야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왼쪽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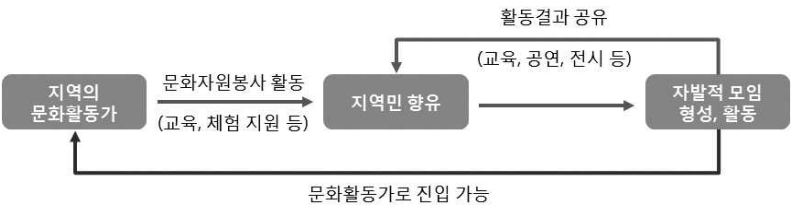
즉,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자원봉사를 통해 피수혜자는 문화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지역민의 문화자본이 축적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지역 고유의 문화가 정립되고 활성화 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이 모두 살아날 때 문화융성이 달성될 수 있다. 문화융성으로 일상이 풍성해진 개인은 자신의 문화자본을 투자하여 새로운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개개인이 문화체감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문화자본을 축적하게 되면,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양산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르와 유형의 문화콘텐츠와 산업영역의 발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문화자원봉사가 중요한 기재가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당

장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 지역에 적합한 문화자원봉사 발굴

지역민의 문화자본축적, 지역문화 활성화 매개체로서의 문화자원봉사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에 적합한 문화자원봉사 활동 개발과 문화자원봉사자 발굴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문화적 경험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화자원봉사를 통해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진다.[28] 문화자원봉사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향수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4> 문화자원봉사를 통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출처 :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활동처 교육자료, 37쪽 그림 재구성]

이를 통해 보면 지역의 환경과 특성, 지역민의 요구에 맞는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운영이 지역에서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문화자원봉사 활동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발인 모임·동호회 등이 생성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 모임이 다시 문화자원봉사자로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순수하게 지역민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호회나 모임들은 본인들이 오랜 기간 학습한 재능을 제공할 수 있는 무대가 필

28)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활동처 교육자료집』, 2015, 37쪽.

요하다. 이 무대가 곧 문화자원봉사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호회 활동이 취미활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자신들만 즐기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과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사적인 개인의 취미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29]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발생한 동호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화자원봉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30]

이들의 활동은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운 것을 돌아보고 즐기는 활동이다.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지역민과 공유하면서 지역민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나 문화공간 등을 조성·발굴하면서, 이러한 현장에 문화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자원봉사 현장 발굴, 자발적 모임의 육성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문화생활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향유하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문화의 일상화, 문화융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29) 박승현, 앞의 글, 25쪽.

30) 장세길, 「문화민주주의를 넘어-전라북도 사례로 살펴본 새로운 문화전략 모색」, 『지역사회연구』 23(2), 한국지역사회학회, 2015. 58쪽.

### 3. 문화자원봉사 정착을 위한 체계 확립

문화자원봉사가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지역 거점으로 운영되는 시군구지원센터가 문화와 체육분야로 나뉘어져 지정·운영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문화자원봉사의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생활문화센터[31],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생활체육회 등 지역에서 시군구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이 현재 지역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관련 기관들 중에서 지역의 문화자원봉사를 지원·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재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 생활문화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립된 생활문화센터가 시군구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혹은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와의 통합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시군구지원센터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활문화센터·지방문화원·문화의집·생활체육회 등의 문화기관을 지역의 잠재적 문화자원봉사를 발굴하고 소규모 문화현장 및 문화단체와 연결해주는 노드로 활용할 수 있다.

<표 2> 지역에서의 운영체계

| 기관 | 역할 |
|---|---|
| 시군구지원센터 | - 문화자원봉사현장-문화자원봉사 매칭 지원<br>- 문화자원봉사자 및 기관 교육<br>- 지역내 문화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br>- 지역내 네트워크 구성 등 지원활동 |

31)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진흥원이 주관·관리하는 기관이다. 생활문화진흥원은 2016년 5월에 설립된 곳으로,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전담으로 주관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 생활문화시설 조성,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전국생활문화제 개최, 지역내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매개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다. 이 중 지역에서의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생활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nccf.or.kr/index.asp (2016. 10. 11)

| 기관 | 역할 |
|---|---|
| 지역내 문화기관 | - 문화자원봉사 현장 제공<br>- 잠재적 문화자원봉사자 양성<br>- 소속된 문화자원봉사자 관리 및 파견<br>- 지역내 문화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피드백<br>- 지역내 소규모 문화단체 파악 |
| 지역내 소규모 문화단체 | - 문화자원봉사 현장 제공 |

이와 함께 법적 근거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시도지원본부 및 시군구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배치 등의 지원체계 마련, 타 자원봉사 영역과의 관계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국가적으로 전체 자원봉사 활동의 근거가 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정리 및 유사 시스템간의 운영영역 정립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문화자원봉사 운영을 위한 주관기관 내부규정의 정립도 필요하다. 지역의 시군구지원센터 운영의 근거가 없는 현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자원봉사를 운영하며 지역의 거점이 시군구지원센터라는 운영체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지역에서의 시군구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 조사 및 개발, 기관에서 문화자원봉사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진행, 문화자원봉사자 양성 및 발굴, 지역의 자발적인 동아리 및 소모임 발굴 및 지원, 문화인력-관련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역할이 사실상 시군구지원센터의 기능이 될 수 있다.

특히 교육기능은 시군구지원센터의 중심기능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자원봉사 시작단계에서 봉사자들은 본인이 학습한 내용, 재능을 기반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 즐거움을 갖게 되며, 또 다른 새로운 경험, 창의적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길 원하게 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활

동에 대해 익숙해져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거나, 단순한 활동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도 문화자원봉사의 개념과 의의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일반적인 봉사와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봉사활동을 제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32]

이러한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자원봉사자와 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곧, 시군구지원센터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에서 문화자원봉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문화자원봉사→지역민 문화자본 축적→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민 삶 만족도 증진→새로운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이라는 지역에서의 선순환구조의 중요 매개체가 바로 시군구지원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의 문화자원봉사 활동, 시군구지원센터의 역할은 시스템만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질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에서의 문화자원봉사 활동기획을 지원하고, 문화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등 봉사현장의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유사 영역과의 연계 강화

지역에서 진행되는 유사한 정책사업과의 연계, 자원봉사 다른 영역과의 관계정리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에서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인생나눔교실, 길 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문화정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지역의 문화공동체 회복, 세대

32)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세미나 자료집』, 2015, 57쪽.

간 소통과 교감, 문화기관의 지역활동 강화 등 문화자원봉사와의 접점을 가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역민의 자율적 문화활동 활성화와 문화를 매개로 하는 주민공동체 구축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3] 지역에서의 생활, 일상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요한 문화자원봉사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실버세대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어르신 문화봉사단 운영이 주요 사업내용이다.[34]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배움에서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35] 지역에서의 문화자원봉사와의 접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생나눔교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은퇴자와 문화예술인을 주축으로 멘토봉사단을 운영하였으며, 봉사단은 지역의 중학교·아동센터·보호관찰소 등에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36] 길 위의 인문학은 박물관, 공동도서관 등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민에게 인문학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자원봉사의 중요한 현장이 될 수 있다.[37]

---

33) 전병태, 앞의 책, 24쪽.
지역에서의 진행되는 다양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내용은 블로그 참조.
http://blog.naver.com/culture_wave (2016. 10. 12)

3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설명회 개최", 2016. 1. 26.

35)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소개 내용 http://www.kccf.or.kr (2016. 4. 23)

36)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세대를 넘어 사람을 이어주는 인생나눔 멘토봉사단을 찾습니다.", 2015. 4. 1.
인생나눔교실 블로그 http://blog.naver.com/arko2010 (2016. 10. 12)

37)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http://museumonroad.org (2016. 10. 11)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http://www.libraryonroad.kr (2016. 10. 11)

이들은 모두 지역에서 문화를 매개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거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세부 내용에 어르신 문화봉사단 운영, 어르신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활동가 양성을 포함하고 있어 문화자원봉사와 상당부분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자원봉사와의 분명한 연계점을 찾을 수 있다.

실재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오랜 기간 학습하고 개발해왔던 것들을 축적시켜,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기도 한다. 합창단이나 무용단 등에서 활동하며 공연을 하거나, 공예를 배워서 결과물로 전시를 진행하거나 혹은 지역내 문화해설사로 활동 하는 등의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자원봉사와 연결되기도 한다. 즉 지역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38]

<표 3> 유사사업과의 연계

| 프로그램명 | 주요내용 | 연계점 |
|---|---|---|
|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 - 임대아파트단지, 서민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대상[39]<br>- 지역민이 직접 문화예술활동을 설계·실행<br>- 자율적 문화활동 활성화 및 주민공동체 발전 추구 | - 문화예술활동 기획, 실행에 문화자원봉사자 참여 가능<br>-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자체가 문화자원봉사 현장으로 연계 가능 |
|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 - 실버세대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br>- '배움'에서 '나눔'으로 연결되도록 유도<br>- 문화활동가양성, 문화나눔봉사단활동, 문화동아리지원, 어르신-청년 협력 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구성 | -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활동이 문화자원봉사 영역으로 편입<br>- 어르신문화활동가양성 및 문화동아리지원 후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 가능<br>- 어르신문화동아리에 지역의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가능 |

38)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서는 어르신문화활동가 양성,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운영, 어르신문화동아리 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자원봉사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다. 실재 활동 사례는 한국문화원연합회,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례집-문화로 물들다』, 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business/page0505.jsp (2016. 10. 12)

| 프로그램명 | 주요내용 | 연계점 |
|---|---|---|
| 인생나눔 교실 | - 인문 정신가치 구현과 세대간 소통을 통한 인문정신문화의 학습[40]<br>- 멘토:인문·예술전문가 및 은퇴인력<br>- 멘티:청년(병영), 아동·청소년(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 등) 대상 | - 멘토단이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 가능<br>- 멘티그룹이 속한 기관과 지역이 문화자원봉사 현장으로 연계 가능<br>- 멘토단-문화자원봉사자 파트너쉽으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 길 위의 인문학 | - 도서관·박물관에서 기관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문프로그램 제공, 일상적인 인문학 학습체계 구축 | - 도서관 및 박물관의 프로그램에 문화자원봉사자 참여 가능<br>- 프로그램 운영현장이 문화자원봉사 현장으로 연계 가능 |

이러한 정책사업 간 경중이나 상하관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사업간 분명 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각 정책과 사업의 목적, 내용을 검토하여 연계할 것과 아닌 것, 유사점과 차별성을 분명히 정리하여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자원봉사가 지역민과 맞닿아 있는만큼 이러한 유사 성격의 정책, 사업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타 영역에서의 자원봉사와의 관계 또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자원봉사, 사회복지 분야, 청소년 자원봉사 등 활동주체나 분야별로 특성화된 자원봉사 영역과의 관계를 일컫는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문화기관에서의 활동이나 문화활동들이 포함되기 마련이며, 사회복지기관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또한 문화자원봉사 영역에 포함된다.

그리고 현재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도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봉사 현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자원봉사 현장과 중복되며 시군구지원센터의 역할과도 중복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자원봉사 영역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

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생나눔교실 멘토를 위한 소양, 역량 입문교재』, 2016, 123~124쪽.

기 마련이다. 이와의 관계정립은 앞서 언급했던 법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사사업과의 관계, 타 영역 자원봉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자원봉사가 지역에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으며 그 본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문화자원봉사는 문화적 교감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문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즉 '지역'에서의 역할에 더 비중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화융성의 국정기조 아래 '문화의 체감확대, 문화일상화' 등의 목적을 위한 키워드 중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면 일상의 문화라 함은 바로 개개인의 삶, 개인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말이다. 일상은 모든 사람의 진짜 삶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이곳'이 중요한 것이며, 이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기억될 때 삶의 질, 행복의 증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개인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문화이며, 개인의 일상이 모이는 작은 단위가 바로 지역문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적 특색,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문화가 형성되고 활성화될 때 그것이 바로 문화융성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진정한 문화융성은 위에서부터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이 융성할 때 실현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다양

한 경험의 축적, 문화적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문화적 자본이 축적되었을 때 풍성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가적 정책 사업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자원봉사도 본질에 충실하게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지역에서의 문화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사업의 방향을 제안해 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사업'으로만 남지 않고, 문화자원봉사가 지역에 제대로 정착되어 지역에서의 삶, 일상의 문화가 융성해 지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자원봉사 가이드-스스로 나누고 즐기는 힘, 문화자원봉사』, 201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자원봉사 활동 개발 연구』, 2014.

박승현, 「문화예술과 여가를 통한 국민행복-패러다임의 전환과 여가정책」,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 종합토론회 자료집-문화융성으로 여는 국민행복』, 2013.

장세길, 「문화민주주의를 넘어-전라북도 사례로 살펴본 새로운 문화전략 모색」, 『지역사회연구』23(2), 한국지역사회학회, 2015.

전병태,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조현성,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생나눔교실 멘토를 위한 소양, 역량 입문교재』, 2016.

한국문화원연합회, 『2015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례집-문화로 물들다』, 2015.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시군구지원센터 교육자료집』, 2015.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활동처 교육자료집』, 2015.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세미나 자료집』, 2015.

한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2015년 가을호.


## 2. 기타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2015년/2016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나에게 맞는 문화체육자원봉사, 더 쉽게 찾는다.”, 2014. 12. 2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세대를 넘어 사람을 이어주는 인생나눔 멘토봉사단을 찾습니다.”, 2015. 4. 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설명회 개최”, 2016. 1. 2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3. 사이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http://www.libraryonroad.kr (2016. 10. 11)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문화품앗e http://csv.culture.go.kr (2016. 10. 3)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 https://www.vms.or.kr (2016. 4. 14)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블로그 http://blog.naver.com/culture_wave (2016. 10. 12)

생활문화진흥원 http://www.nccf.or.kr/index.asp (2016. 10. 11)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http://museumonroad.org (2016. 10. 11)

인생나눔교실 블로그 http://blog.naver.com/arko2010 (2016. 10. 12)

인천연수문화원 http://www.yeonsu.or.kr (2016. 10. 10)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http://dovol.youth.go.kr (2016. 4.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 (2016. 10. 12)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www.kccf.or.kr (2016. 4. 23)

(사)문화의 집 협회 http://www.cultureclub.or.kr (2016. 10. 12)

1365자원봉사 포털 https://www.1365.go.kr (2016. 4. 13)

<Abstract>

# Suggestions for activation Cultural Volunteering in the local area

Lee, Hee-sook·Yim, Young-sang

This research is aiming for two things; One is to arrange the essential meaning and the goal of 'Munwha Zawon Bongsa (Voluntary Work in Cultural Arena, briefly, VWCA)' within a particular local area, and the other one is to suggest a new way to boost one of the current businesses called 'Munwha Zawon Bongsa Hwalsungwha Sah up(Vitalizing Business for Voluntary Work in Cultural Arena)' for the Work's original significance. VWCA has been done in a lot of different places since 90s, but recently it became more spot-lighted due to the current political interest in 'Munwha Yoong-Sung(Cultural Abundance)'.

VWCA is basically connected to the very local area, and it is a kind of an activity which is donating one's talent to the place so that she or he could communicate with the local residents; which can ultimately lead to the accumulation of cultural capital in that area and vitalizing of the local culture. This project, VWCA, will be able to become an important medium that actualizes revitalization of local

culture and finally the cultural abundance itself.

For this reason, I do suggest that the main object of 'Vitalizing Business for VWCA' should be 'positive transformation of its action plan,' 'exploration on volunteers and their activities reflect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local area,' 'establishment of the system which can be settled in the local environment,' and 'interdisciplinary with other different policies,' etc.

Key words : Voluntary Work in Cultural Arena, Local Culture, Vitalizing Business for VWCA

이 논문은 2016년 9월 13일 투고되어 2016년 10월 6일 1차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6년 10월 21일 2차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0월 21일에 게재 확정되었음.